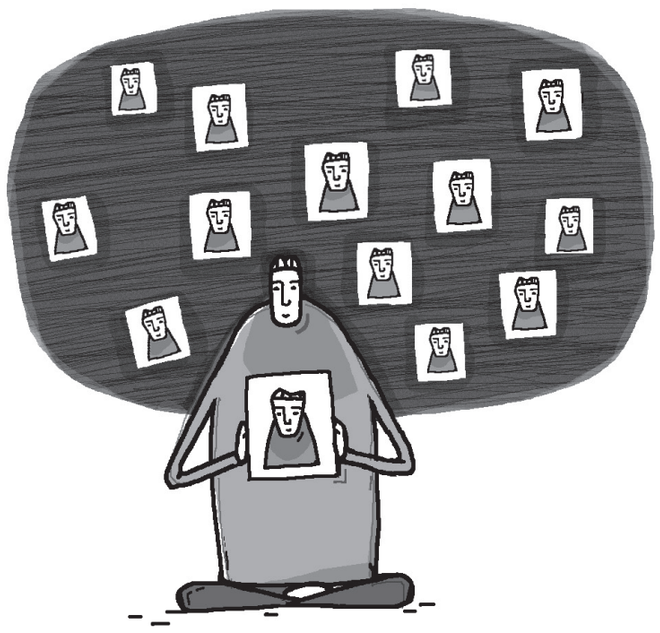


대행 스님

딴 데 불들지 말고 진짜 해결사를 불들고 늘어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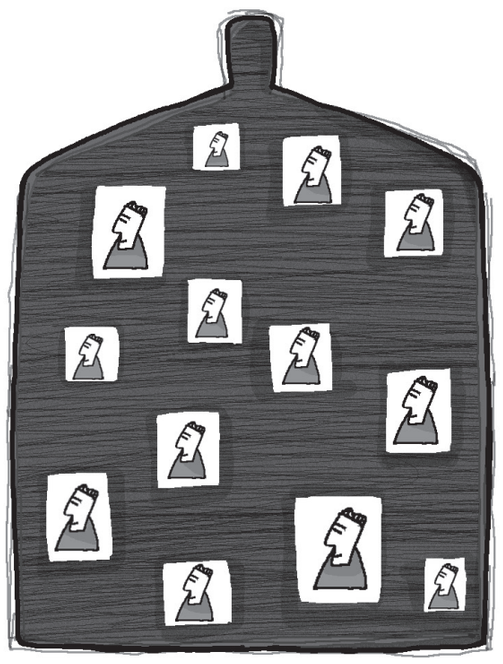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여러분과 같이하면서도 여러분 모습이 다르고 내 모습이 다르고 처소가 다르고 그런 까닭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작업을 처음에 해야만 되는가.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각오가 단단히 선, 견고한 마음으로써 모든 거를 용광로에 넣는 작업이 첫째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불이 벌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우리는 일체 모든 생활에서 그 일체를, 자기 몸까지도, 생과 사도 거기에 놓는 작업을 한다. 안 되는 것도 거기고 되는 것도 거기고, 외로운 것도 괴로운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도 거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빨리.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을 육안으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도 길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는 것도 거기서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엎드러진 놈이 있으면 "아이구!" 하고 빨리 일어나는 놈도 바로 그 놈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잘된다 못된다를 다 놓는 그 작업에 세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다 놓고 들어가실 때는 모든 일체 오간지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온 습이 모두 끊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릇이 꽉 찼던 것이 비고, 빈 것도 없고 담긴 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될 때에, 바로 '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발견이 되면 그때서부터 기초가 튼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됐으면 그때 가서는 기둥을 세우게 돼 있죠, 집을 짓는 데. 기둥을 세우는 데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요거는 기둥이고 요거는 서까래고, 요거는 기왓장이고 요거는 벽돌이고, 흙이고 흙손이고 재료의 이름은 다 아신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집을 짓는 데는 견고하게 어떠한 재료든지 이름을 찾지 말고 그냥 갖다가 벽돌이 있으면 '이거 벽돌이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벽돌을 집어오너라." 하든지 집어다간 그냥 쌓는 겁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 가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남들을 불러서 가르치려면 "저 서까래를 가져오너라." 이러지마는 자기가 쓸 때는 그냥 서까래를 집어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일꾼들이 아무 소리 없이 "서까래를 올린다." 하면 벌써 일꾼들이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냥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대들보가 올라가죠. 대들보에 간접적으로 붙어 돌아가는 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몸뚱이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재료가 많이 붙어 돌아간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오신통이 오신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 집을 지으려면 대들보가 올라가듯이, 탑을 세우면 위 봉우리가 올라가듯이, 우린 그 재료로 인해서, 망상이나 모든 악행, 거기에 쓸모가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자(善者)가 되고, 선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봉우리가 올라가고 대들보가 올라가는 격이다 이 소립니다. 그 모두가 없다면 해탈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와 같고, 우리가 벌써 집을 지으려면, 내가 그런 말을 하죠. "항상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벌써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무너지면 세 가지째는 벌써 나를 발견한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애가 학교에 가야 하니까, 가난하니까, 일이 안되니까, 모두 정신이 다 거기 가 있습니다. 진짜 해결사한테 마음을 둬야만이 그것이 해결될 텐데, 해결사는 벌써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결사를 붙들고 늘어져야 할 텐데, 그 일하는 걸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나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러거든. 진실히 믿기는커녕 해결사를 붙들어야 할 텐데 딴 데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슬픈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를 슬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울면 저도 울어지고 여러분이 웃어지면 저도 웃어집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둘이 아닌 까닭을 모르시죠. 왜 둘이 아니라고 하나?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식 이것을 이름 따라서 꼭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외우다 보면 재료의 이름을 외우는 셈이나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거를 배우지 않고, 그 재료 이름만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근을 말하자면 내 몸뚱이에 있는 여섯 가지의 기능이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눈이 가는 데에 귀가 가고 귀가 가는 데에 눈이 갑니다. 그럼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인데 한 손가락 가지고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무슨 일을, 뭘 집으려 해도 다섯 손가락이 다 이렇게 가서 집지, 한 손가락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이거는 육근을 여섯 가지로 보지 말고, 그건 일심에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계가 여섯 가지라면, 여섯 가지가 아니라 일체입니다. 전부입니다. 바깥으로 봐서 들이는 게 또 여섯 가지라면 일체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놓는 거,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의식 자체가 육식입니다. 그래 이것이 한데 합치면 십팔이 되죠. '십' 이러면 그냥 만(卍)으로 돌아가는 그게, '팔' 하면 사유 사무 이것을 한데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십팔 심(心), 그 인연에 의해 연(緣)에 따라서 뭉쳐진 거죠. 식(識)입니다. 의식으로 한데 뭉쳐서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 분잡하게 고달프게 이름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일심에서 내 본래자성불에서, 자성불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서 모든 것을 일거일동, 물질로다가 이름을 세우려 하지 말고, 학술로다가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다가 알 양으로 하지 말고, 아는 거를 쓰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서…. 그것이 둘이 아니요, 셋이 아니요, 넷이 아니요,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옛날의 선지식들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말과 매이지 않는다는 말과 끄달리지 않는다는 말과 또는 여여하다는 말 그것이 모두가 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